

교섭속보

- 주 1. 정년연장, 신규채용
- 요 2. 고정OT 월 20시간
- 요 3.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%
- 구 4. 노동조합 활동 보장

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/ FAX(031)680-6865 / 발행일 2026년 9월 11일(금) / 제 09호

10차

◆ 임금

◇ 교섭 일시 및 장소 - 2026년 9월 10일(목) 10:00 ~ 10:0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

◇ 참석

□ 노측 : 이현우 교섭위원 외 9명

□ 불참 : 김병철 교섭대표, 박성영 교섭위원

□ 사측 :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

□ 불참 : 없음

□ 사회 : 김양현 교섭위원 (사측)

□ 차기교섭 : 실무 논의

◆ 단체협약

◇ 교섭 일시 및 장소 - 2026년 9월 10일(목) 12:30 (실무교섭)

왜 고정OT 월 20시간을 요구하는가

만도지부는 고정OT 월 20시간 도입을 요구한다. 이는 지금 발생하지도 않은 연장근무에 대해 대가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. 월급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사라진 소득을,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는 것이다.

2015년, 노사는 근무형태와 월급제 시행에 합의했다. 그 합의로 상여금 600%가 기본급화 되면서 상여금에 포함되어있던 OT가 정액화되었다. 유동성 임금인 잔업, 특근, 연차수당은 개개인마다 격차를 보이지만, **고정성 임금은 임금인상액에 반해 그 효과가 미비해진 것이다.** 당시 노사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합의했다. 그러나 그 대가로 정액화 되어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고정성 임금은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다.

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다. **최근 5년 연속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.**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에도 마찬가지였다. 근무형태가 바뀌며 사라진 몫은 메워지지 않은 채, 임금은 정체되고 또 정체되어 왔다.

고정OT 20시간은 이 정체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.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, **제도 개편으로 사라진 소득을 구조적으로 복원하자는 것이다.**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조합원들의 몫이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.

열 번을 만나고도 빈손인가

금일 열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다. 요구안을 전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회사는 안을 내놓지 않았다. 4차, 6차, 8차에서도 들었던 그 말을, 열 번째 자리에서 또다시 들어야 했다.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. 회사는 임금교섭이라는 이 자리를 대체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.

지난 두 달을 되짚어 보자. 회사안 마련에 곤욕스럽다, 노사 간 시선 차이가 크다, 월급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안을 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, 등 매번 다른 말로 자리를 채웠지만,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. **‘안이 없다.’** 열 번의 만남 동안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내놓은 것은 이 한 문장뿐이었다.

회사는 조합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. 회사는 최근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. 자동차 부품업계 매출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, 현장 가동률은 최고 88%를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. 이만큼 일을 시키고,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고서도, 그 몫을 나누는 안 하나를 열 번의 자리에서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. 정몽원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05억원으로 재계 순위 10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. 회사 전체의 곤궁함을 이야기하면서, 총수 한 사람의 곤궁함은 이야기되지 않는다. **이 비대칭을 조합원들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가.**

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합원들은 두말없이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. 회사와 함께 버티겠다는 마음이었다. 그런데 이듬해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뛰어올랐을 때, 조합원에게 돌아온 것은 평년과 다를 바 없는 인상률이었다. 어려울 때는 함께 견디자고 했던 회사가, 좋을 때는 그 몫을 나누지 않았다. 지금 열 번째 교섭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. **회사가 어렵다고 말할 때는 조합원이 참았고, 실적이 좋아질 때는 회사가 침묵했다.**

이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. 두 달 동안 열 번의 자리에 나가 같은 말만 들었다. 그 시간 동안 물가는 그대로 오르고,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는 그대로 흔들렸다. **회사가 시간을 끄는 동안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매달 같은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다.** 이 사실을 회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,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.

이제 더 이상 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다. 회사는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임금안을 제시하라. 눈높이가 다르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, 그 눈높이를 좁힐 실질적인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라. **회사가 거둔 성과에 걸맞은 몫을,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내놓아라.**

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열 번의 빈손 교섭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. 회사가 계속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, 만도지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.